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2년 4월 1일 제22호

SBS사우회보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임형두 편집인 박동주 주소 150-8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 태양빌딩 605호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E-mail sbssau@hanmail.net



▲ '노림의 美學! SBS 사우들 봄날의 올레길' 유채꽃 들길을 지나 산길 모퉁이를 돌아 봄빛 바다 성산일출봉 해안길 따라 시흥에서 광치기 해변에 이르는 올레길 1번코스를 걷고있다(관련기사 2면)

당선의 기쁨 함께 하겠습니다

총선출마 사우 앵커맨 3인방 선전 기대



전용학 사우



정성근 사우



홍지만 사우

4월 11일 치뤄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SBS 앵커맨 출신 사우 3명이 나란히 도전한다.

전용학 사우가 충남 천안갑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2선을 노리고 홍지만 사우가 와신상담 4년전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대구 달서갑 새누리당 후보로 SBS 나이트라인을 진행했던 정성근 사우도 새누리당 파주갑 후보로 각각 국회의원을 두드린다.

또한 유정현 사우를 몸담았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재선을 노린

다. 지금까지 SBS 앵커맨 출신으로 국회에 진출한 사우들은 현 행정안전부 맹형규장관이 15대 총선때 첫 테이프를 끊었고 전용학 사우가 16대 총선 때 SBS 앵커맨 출신 2호 국회의원을 기록했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성근, 홍지만 사우가 국회의원에 당선돼 SBS 앵커맨 출신 계보를 이어 갈지 사우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총선서 재선에 도전하거나 예비후보로 나섰다 공천을 받지 못한 다수의 사우들이 진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4년후를 기약했다.

새봄을 열다

SBS 사우회 2012년도 정기총회



임형두 회장

임형두회장 연임 새 부회장단 구성



곽영범



박충



임영규



엄광석

SBS 사우회 2012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24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서는 현 임형두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관변경을 비롯한 2011년도 수지결산 승인과 2012년도 수지예산안 승인 등의 의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사우회 임형두 회장은 여러차례 연임을 고사했으나 사우들의 간곡한 뜻을 받아들여 다시 임기 2년의 SBS 사우회를 이끌게 됐다.

임 회장은 연임 인사말을 통해 '한번 시작한 일, 끝을 맺는 有始有終의 마음으로 SBS 사우회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총회서는 종전 3인의 부회장단을 4인 체제로 변경해 곽영범, 박충, 임영규, 엄광석 사우를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이사로 이시권, 이재명, 차성모 사우가 선출됐다.

벽한 준비, 광고시장 체계 변화에 따른 수익극대화 등 본사 소식을 소상하게 들려주면서 SBS 사우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사우들은 인근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SBS 사우회의 새봄의 기운을 만끽했다.

이어 이날 열린 2012년新春바둑대회에서는 15명이 출전해 2개팀으로 나눠 열전을 벌인 끝에 A조에서 변건사우가 우승을, 정승화사우가 준우승을 이기화사우가 3위를 차지했고, B조 소장파에서는 김벽수사우가 우승을, 박오중사우와 강동하사우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총회를 참관한 SBS 홀딩스 이남기 사장은 SBS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세와 2012 하계 런던올림픽 방송의 완

미리 가볼까? 5월 야외회

5월 야외회가 색다르게 준비되고 있다. 사우회는 올봄 야외회를 5월 24일 갖기로 하고, 예년과 달리 알차고 뜻깊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2가지 방안을 놓고 장소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안보현장 견학

과 인근 관광지를 돌아보는 코스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여 백제문화단지 관람 2가지 안을 놓고 사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백제문화단지에는 백제 사비왕궁과 도성을 재현해 놓았다.

봄날 활짝 핀 예능의 꽃

고현정의 GO show

고현정이 토크쇼의 여왕으로 등극한다. SBS TV는 4월6일 탈렌트 고현정이 진행하는 토크쇼 <GO show>의 문을 연다. 연기자로 최정점을 찍고 있는 고현정의 MC 변신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어 금요일밤 예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현정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은 이 프로그램 통해 까칠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GO show>는 가수 윤종신 개그맨 김영철, 정형돈이 보조 진행을 맡게 돼 이들의 입담이 벌써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다. 기존 토크쇼의 틀을 깨고 인간 고현정을 재조명하게 될 <GO show>에는 톱스타 조인성과 천정명이 첫 게스트로 나오게 돼 그녀의 폭넓은 친분 관계가 봄날만큼이나 화사하고 풍성하게 느껴진다.

협찬금 내신분 ◆ 협찬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954097 ◆
박찬근(20만원), 곽영범(10만원), 임영규(10만원), 엄광석(10만원)

올레길을 걷다

글/ 박영호 사우

제주 올레길을 꼭 걷고 싶은 마음이 있던 차에 요산요수회에서 2박3일 올레길 트레킹을 한다는 공지를 보고 반갑게 신청했다. 3월22일 오전 10시 각자 알아서 전용기를 타고 온 듯 18명이 제주 공항에 집결했다. 첫 코스인(제5코스 총15.7km)남원포구로 향하는 도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출발지 남원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비닐 우의에 몸을 맡기고 해안길로 연결된 올레길 5코스를 걷기 시작했다. 비는 갈수록 거셌다. 온몸은 비에 젖어서 걷기조차 힘든 상황인데도 일행들은 묵묵히 걸으며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함께 간 선배님들 중에는 7순이 넘으신 분과 7순을 바라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제일 젊은 내가 막내가 되었다. 하지만 이분들의 체력은 100세를 보장하고도 남을 정도로 놀명 유명 걸으셨다.

비오는 제주 해안 길은 아름답고 운치가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절경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자연이 빚어놓은 절경을 감상하는 사이 어느 듯 제5코스의 종점 쇠소깍에 도착했다. 인근에 있는 돌담집 카페에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며 젖은 몸을 녹이자 4시간 30분을 걸은 피로가 사라

지는 듯 했다. 숙소인 풍림콘도에 도착하여 젖은 옷과 신발들을 말리고 제주의 유명한 흑돼지구이로 저녁과 함께한 술 한 잔속에 옛날 방송했던 이야기와 요즈음 근황을 담아 화기열열 즐겁게 웃음꽃을 피웠는데 오창근 사우의 입담은 압권이었다.

23일 아침에는 서상정사우 내외분이 장만해온 참쌀밥과 특식 라면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제7코스 15.5km를 걷기위해 서귀포 외돌개를 출발했다. 이날도 비는 계속왔다. 7코스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코스였다. 깎아지른 절벽사이로 몽돌밭을 걸었고 주로 바닷가 옆으로 걷는 코스라 굉장히 난코스였다. 그래도 우리 동지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완주를 했다. 마지막 날은 제주 올레길 중에 성산 일출봉을 끼고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시흥에서 광치기 해변에 이르는 제1코스 15.8km를 걸었다. 이를 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이날은 그 유명한 제주바람이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참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했는데 전원 낙오 없이 일정을 끝냈다. 올레길 19코스 중 3개 코스만 탐방했지만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제주 올레길을 계획하신 박건삼회장님과 함께 고생한 요산요수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신 서상정사우 사모님과 정승화 사우 사모님, 소속자, 신영애 사우, 사우회 장진영씨께 우리 일행들의 매 끼니를 위해 애써 주신 것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이 부른다

동호회 기지개를 켜다

요산요수회 올레길 탐방, 골프동호회 4월 티샷

SBS 사우회 7개 동호회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기지개를 켜다. 요산요수회는 3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올레길 트레킹을 가졌다. 이번 올레길 트레킹에는 18명의 사우들이 참가해 3개 코스를 탐방했다.

첫날은 남원포구에서 쇠소깍에 이르는 5코스를 걸으며 해안길 풍광을 감상했고 둘째날은 올레길 코스중 가장 인기있는 외돌개서 월평마을에 이르는 7코스를 마지막날은 시흥을 떠나 광치기 해변에 당도하는 1코스를 걸었다. 요산요수회가 탐방한 3개 올레길 코스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동남쪽 해안가 코스로 평균 15km로 4-5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

특히 이번 올레길 탐방에는 3명의 사우가 부부동반으로 참가해 유감없는 애정을 과시하며 혼자온 사

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에 앞서 요산요수회는 지난1월 팔당 한강변 걷기에 이어 2월에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투어를 가졌다.

한편 제철을 맞게된 골프동호회는 올 첫 라운딩을 4월 17일 이천더반 CC에서 갖는다. 골프동호회는 예년과 달리 라운딩 횟수를 3회 정도 늘려 많은 사우들이 참가할 수 있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음악감상동호회는 지난 3월17일 일산 대화 강동하 사우 전원 주택에서 울들어 첫 야외 봄날 음악감상회를 가졌고 지난 2월 문화동호회와 여성동호회는 합동으로 영화관람을 했다.

이밖에 당구동호회도 지난 2월 17일 첫 모임을 갖고 적백구의 묘기를 즐겼으며 회원들에게 한국 당구 아카데미서 발행한 기본 자료집을 배부했다.

회비안내 (중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20,000원 중신회비 : 200,000원
회비납부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901-277104

사우 TALK

아름다운 속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 이런 교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트 또 할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 서울 한복판 북촌 한옥마을을 처음 가본 느낌 장동욱 사우

봄이 오긴 온 모양입니다. 마누라 외출이 잦은 걸 보면... 봄바람이 불긴 부는 모양입니다. 간근 친구들이 문자로 마누라 떼어 놓고 바람쐬러 가자고 바람잡는 소리 날리는 걸 보면..

- 봄날의 꿈을 꾸다가 김근수 사우

푸른밤인지 달빛이 어머했는지 제주도 신혼여행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사 각방을 쓰니 제주도의 밤은 푸르고 파도소리가 애잔하고 달빛이 고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단체로 오면 이런거요.

- 요산요수회 부부와 함께 올레길 걷기 독수공방 사연 정승화 사우

오래 기다려셨죠. 기다림 만큼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고 그리 비싸지도 않은 곳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도 좋고 스코아도 잘나오는 곳입니다. 겨우내 같고 닭은 굶주렸을 보여주세요. 오비는 사절입니다.

- PGA 대회보다 수준 높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골프동호회 총무 이무열 사우

앗 뜨게! 총선 열기에 화상을 입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국회의원 당선보다 더 힘든 곳이 어딜까? 앞으로 SBS 앵커맨 관문은 낙타 두마리 바늘 구멍 뚫기가 될 것 같은데요.

- 19대 총선에 출마한 SBS 사우들의 건승을 빌면서 배성례 사우

많은 사우들이 자리를 함께해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옛날 여의도 사육 시절이 떠오르네요. 소주 한잔 기울이며 잠시 그 때로 돌아가니 추억의 이야기 보따리 많기도 하여라.

- 2012년 정기총회가 끝난후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서상정 사우



SBS社友漫評



위도일손(爲道日損)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날마다 무언가를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경|조|사|향

결혼	부음	연회비내신 회원(1~3월)	중신회비내신 회원(각20만원)
권오형 장남(1월14일) 서경수 장남(1월14일) 김임순 차남(3월17일)	김익성 빙모상(1월16일) 신병식 부친상(2월15일) 공영화 빙모상(1월19일) 이상수 빙모상(2월22일) 서영철 빙모상(1월24일) 홍성주 빙모상(3월21일) 윤동혁 부친상(2월13일)	김경환, 김상진, 김임순, 김우주, 김종영 김찬규, 김한옥, 김홍덕, 노기운, 문주우 박광호, 소속자, 이상근, 이영혜, 임영규 양승봉, 유 정, 유재순, 장동훈, 조병식 조한일, 전윤표, 천영일	김덕준, 이영돈, 이취형, 이태홍 임상용, 옥도일, 양철호, 장준보 조현용, 채홍기

베스트셀러 예감!

사우들이 펴낸 2권의 책

사우들이 집필한 책이 잇달아 출간됐다. 박건삼 사우회는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지침서<Seven Up 품격있게 사는 7가지 방법>을 펴냈고 강인식 사우회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도 마케팅이다, SNS로 통하라>는 제목의 책을 시기적절하게 출간했다.

박건삼 사우회는 'Seven Up 품격있게 사는 7가지 방법'의 책을 통해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외로우니까 노년이다, 라는 전제아래 고령화사회 고독에 강한 인간으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세븐 업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7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깨끗하고 청결하게 자신의 몸을 가꿀 줄 아는 Clean Up, 둘째 멋 부리는 노인이 아닌, 멋을 아는 노인이되기 위한 Dress Up, 셋째 나이들수록 말을 아끼고 경청하자는 Shut Up, 넷째 주위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확인하자는 Show Up, 다섯째 긍정적인 사고로 밝고 건전하게 생각하라는 Cheer Up, 여섯째 즐거움



을 얻고 싶다면 돈을 아끼지 말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Pay Up, 일곱번째 Give Up으로 더 많이 버리고 양보하며 살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책은 94쪽으로 김앤정 커뮤니케이션에서 펴냈다.

강인식 사우의 '선거도 마케팅이다, SNS로 통하라'는 선거 홍보의 전략은 어느 누가 유권자의 소통을 잘하는가에 의해서 당락이 달라지기에 소통의 최고 무기 SNS의 활용법을 강조하고 있다. 효율적인 SNS 선거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관계인, 선거 홍보 관련 종사자,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72쪽으로 아이엠북에서 출간됐다.



봄이다. 지난 겨울이 유독 추웠기에 기다림이 더 했다.

'겨울이면 봄이 머지 않으리라' 아무리 새봄의 밥상을 새 메뉴로 차려려해도 해묵은 썰리의 식귀 만한 밑반찬이 없다.

누가 봄이 꽃피는 계절이 아니라고 할까봐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꽃단장 봄처녀들이 차례로 교태를 부리며 눈길을 유혹하고 있다.

SBS 사우회도 새봄 도약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기 총회서 선임된 새 임원진들의 의욕은 봄 기운으로 가득하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바깥세상 출입이 해금된 골프동호회는 곧 잔디와 조우한다. 요산요수회는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섬 봄향기를 바다 건너 너섬까지 전해주었다.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봄이 소망의 계절임을 확인하고 싶은 동료들도 있다. 월

드컵 본선 진출 보다 힘든 경합을 벌여 총선에 출마한 사우들의 건승을 빈다.

국회의사당 금배지 주인공이 되면 부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이다.

"누굴 찍어? 가가 가고 가가 가가 같은데" 새봄 새 얼굴이 없나 보다. 정치판은 아직 봄이 오지 않았나 보다.

"아니야 봄이 안온게 아니라 바로 여름으로 건너뛰었어"

뜨겁다, 아니 푹푹찌는 열기로 가득하다. 한평이라도 더 찾아해 대지주가 되려는 땅파먹기 대회 여기만 부동산경기가 살아있는 것 같다.

"거 정치 얘기 그만해요, 춘삼월 그냥 보낼 거요"

그래 春三月 호시절이지 봄이 오는 소리 특집 만들 일이 있어 출퇴근 눈치 불일이 있어 춘곤증으로 졸음이 오면 자면되고 뭐가 근심 걱정입니까?

봄이 가져다 준 선물 마음껏 즐기자 매화 향기로 화춘을 하고 신나는 일 멋진 일 찾아서 청춘의 봄을 만끽하자

아 글썽 어느 100세 노인에게 장수 비결을 물었더니 답변이 너무 간단 명료해 계속 숨을 쉬어라! - 편집자 註 -

◆남미 탐방기

배낭에 담은 100일 야화

글/ 우 선 균 사우

남미 배낭여행 3개월의 대장정은 멕시코 시티 공항에 새벽이 동틀 무렵 개시되었다.

우기철이 끝나가는 9월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한 탓인지 한국의 초가을이 우리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듯 했다.

멕시코시티 식민지의 산물인 소갈로 광장을 배경으로 첫 기념 사진을 앵글에 담고 테오티우아칸의 거대한 피라미트인 해의 신전과 달의 신전위에 올라 사자의 길을 내려다 보았다. 한 곳도 놓치고 싶지 않아 바쁜 걸음을 재촉 했더니 나의 금강산 식후경시계가 꼬로록 울려 멕시코의 맛, 따코로 요기를 했다. 따코 소스는 별로 내 입맛은 아니었으나 약간의 단맛을 느낀 아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숙연해졌다.

'사탕수수밭에 끌려와 노역한 애니깁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아내는 나보다 여행을 사랑하는 여자다. 퇴직후 꼭 남미 여행을 떠나자는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위해 우리는 단체관광의 족쇄에서 벗어나 배낭여행을 감행 한 것이다. 각자 45L 배낭, 캐리어, 색 1개씩을 가지고 <작전명 100일 야화>의 성공을 위하여 맥주잔을 부딪치는 사이 멕시코의 첫날밤(?)은 깊어갔다.

우리의 두번째 여정인 페루, 일년 내내 거의 비가오지 않는 리마의 안개간 해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SBS 주말 드라마 아

이돌 탐스타로 변신했다. 이튿날 리마의 북쪽에 위치한 해발3200m 와라즈 69호수까지 트레킹을 시도 했으나 고소 적응에 실패해 하산 한뒤 쉼이까마 버스 타고 하루코 박 걸려 잉카의 수도 쿠스코를 찾았다. 빨간기와돌과 정교한 돌담의 예쁜 집들이 화려한 색의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 잉카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전통시장 빼삭에서 양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다.

다음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잉카문명의 하이라이트 고대도시 마추픽추에 올라 신비로움에 젖었다. 전생애 함께 여기서 살았다가 한국에서 다시 만난것 같은 아내의 손을 꼭잡고서...

우리의 다음 여행지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투어, 넓은 하얀 소금밭은 지평선 식별의 원근감이 사라진 환상의 세상이었다. 소금 집에서 잠을 자고 화산지대의 노천 온천에서 몸을 담구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풀렸다. 소금 사막 투어에서 만난 얼짱 영국아가씨 일행들과 헤어진 우리는

칠레행 버스를 탔다. 점점 칠레 국경으로 다가오자 우리 너무 행복했다. 이제 고소 때문에 숨차고 가슴이 두근 거리는 지역을 다 돌았기에 해냈다는 뿌듯함이 밀려오면서 우리는 '아이구 답살 이야!' 라는 소릴 들을 정도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거렸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숙소는 침대 5개가 한방에 들어있는 10인용 도미토리로서 숨이 막힐지경이었다. 특유의 몸내나는 낯선 이방인들과 어울려 함께 잠을 자야하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여행은 편안한 심신의 충전이 아니던가?

산티아고를 떠나 지상 최후의 낙원 파다고니아로 가는 길목 푸에르토 몬트에서 커다란 참치 한 마리를 사서 며칠간 질리도록 먹은 기억을 뒤로하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W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툴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전진기지인 푸에르토 나탈레스에 도착했다. 한번 객기를 부리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3박4일의 트레킹이 무리임을 판단하고 당일치기로 지구의 마지막 비경 파이네의 탐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돌아섰다. 여정의 절반을 넘어 어느듯 끝자락에선 남미의 다음 목적지는 아르헨티나였다.

아르헨티나 칼라파테로에서 페리토 모레노의 거대한 빙하 앞에 눌러 빙산의 일각이 뭘지 시청각교육을 확실히 받았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저가 비행기로 힘들게 도착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는 자스민 꽃이 화창하게 피어있었다. 우리 톱크게 보름동안 이곳에 머물며 매일 거리를 산책하고 탱고의 발상지 보카지구에서 길거리 탱고에 빠져들고 에비타 페론이 잠들어 있는 레콜라타를 다녀왔다. 우리 남미 배낭여행 마지막 관광지 이과수 폭포에 섰다. 자연의 웅장함에 또 한번 위압을 당하고 세차게 내려오는 물줄기로 100일 대장정 피로를 말끔히 씻으며 나는 아내를 살포시 감싸안으며 엔딩 사진의 포즈를 취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은 우리 부부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가장 오랜 동안 함께한 생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늦둥이가 생길까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3개월 여정을 지면으로 다 담을 수 없어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우들이 용기를 내 배낭여행을 떠나도록 권하고 싶다. 관광지 곳곳에서 배낭여행을 하는 일흔이 훌쩍넘은 노인들의 환한 얼굴이 지금도 떠오른다.

끝으로 공익광고 한마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별 다섯개 부럽지 않은 호텔은 우리 오뚜막집이고, 우리나라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이야!"

◆ON AIR | 나의 비망록

배워라 영원히 살 것처럼



시인, 국악방송 사장
박준영 사우

Dance, like nobody is watching you.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Sing, like nobody is listening you.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Work, like you don't need money.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Live, like today is the last day to live.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배워라, 영원히 살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문인이 쓴 명구입니다.

삶이 날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이제 곧 진정한 삶이 시작되리라고 믿고 사는 게 사람살이지요. 수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깨닫게 되었다. 이런 저런 방해물과 사소한 일들이 바로 내 삶이었다는 것을...”

사우여러분, 그렇지요. 방송이 내 인생이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불현듯 엄습해 오는 이런 물음에는 막막하지요. 저 역시 그러면서 삽니다. 판 삶을 살아도 결국 철벽같은 이 물음에 막 부딪히게 될 거구요. 우리가 몸 바쳤던 회사가 승승장구한 것만도 큰

다행이지요. 하여 저는 위의 명구에 무덤하게도 한 구절을 더 얹어 봅니다.

〈배워라 영원히 살 것처럼〉

세월이 이마에 주름을 심술궂게 짚게 새겨도 호기심 넘치는 동심과 배움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 아니 행복하겠습니까? 찬바람에도 돌담사이로 돌아나는 새순을 보며 가슴에 밀려오는 순간의 환희 같은 걸 맛보는 것. 배움의 끈과 발견의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소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조그마한 탑이라는 것을. 이 봄도 그렇게 맞이했으면 해요.

건강은 건강할때 2012년 건강검진 실시

SBS 사우회는 2012년 건강검진 병원과 병원별 추가정밀 검사항목 안내문을 사우들에게 발송 했다. 검진병원은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 여의도성

모, 이대목동, 하트스캔 등 6개병원이며 기본 검진은 30만원 정밀검진은 40만원으로 부부 동반 검진도 할 수 있다.

자세한 검사항목은 사우회 홈페이지(www.sbssau.co.kr) 참조하면 되고 건강검진 신청은 사우회 사무처(783-0590)에서 받는다.

사 | 우 | 동 | 정



곽영범 사우는 4월23일부터 Jtbc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 〈해피엔딩〉연출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곽사우는 김수현작가와 콤비를 이뤄 ‘완전한 사랑’ ‘사랑과 야망’ 등 많은 히트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근용 사우는 지난 1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부설 한국드라마프로듀서 School원장으로 취임해 드라마 전문 PD 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사우는 또 경기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교육원 교수, 송실대 언론고시반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벽수 사우는 지난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정관계 인사 초청토론회 준비 등 방송보도발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옥도일 사우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학과 전임대우 초빙교수로 위촉돼 3월부터 매주 3회 강의를 하는 등 후학양성에 공을 드리고 있다.



김한모 사우는 지난 1월 25일 미디어크리에이트 영업담당 사장으로 임명돼 본사 광고 판매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새로 신설된 본사 자회사로 SBS 광고를 직판하고 있다.



이왕돈 사우는 지난3월 TJB 대전방송 사장으로 취임해 충청지역의 방송 문화를 선도하고 신선한 감동과 기쁨을 주는 방송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 사우는 본사 제작시 보도본부 기자출신으로 기획실장과 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정수 사우는 〈해를 품은 달〉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어 KBS 수목 드라마 〈적도의 남자〉를 제작해 잇단 히트를 노리고 있다. 문사우는 팬엔터테인먼트 드라마부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장형일 사우는 4월17일부터 채널A를 통해 방영되는 음식 드라마 〈불후의 명작〉을 연출한다. 장사우는 이 기회에 사극 전문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멋진 김치주제의 음식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신영균 (명예고문)사우는 지난 2월16일 서강대학교 아트 & 테크놀로지 전공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기부했다. 신회장은 2010년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등 500억원 규모의 사유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바 있으며 신영균 예술재단을 만들어 영화인 자녀장학금과 단편영화제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동욱 사우는 지난 1월1일부로 SBS 미디어넷 신규 채널 사업을 추진하는 플러스 신사업 추진단장으로 취임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엄효섭 사우는 지난 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12대 회장으로 선출돼 김벽수 사무총장과 호흡을 맞춰 방송기자클럽을 이끌고 있다.



홍용락 (동아방송대학교교수)사우는 지난 1월11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홍사우가 펴낸 책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하이브리드 디지털 제작단지론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제작 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좋은 지침서로 평가를 받고 있다.

www.sbsnewstech.co.kr

TV 영상·제작·기술 전문회사 SBS뉴스텍이 방통융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중계기술** - 대형행사의 중계차와 중계 카메라를 운영합니다.
- 뉴스제작** - 뉴스 진행 및 송출과 해외 위성 송수신을 책임집니다.
- 영상제작** - 드라마 야외촬영과 특수촬영을 전문으로 합니다.
- 영상취재** - 뉴스 현장의 진실을 촬영합니다.

- 영상편집** - 취재된 영상과 자료화면을 선택하여 편집합니다.
- 보도CG** - 상상의 세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 전략사업** - 방송 기술 SI 사업과 영상 사업을 총괄합니다.



대표전화 (02) 2113-5999
www.sbsnewstech.co.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 방송센터